발우공양 생활화 해야

큰스님

(장수 죽림정사 조실)



◇예의와 엄격한 계율수지를 강조하는 도문스님. 스님은 전법을 위해 불경과 어록을 100만권 배포하고 100만명에게 수계했다.



◇스님은 항상 상좌스님들에게 금강경의 요체를 설하신다.

음을 이루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내 마음 가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니 일과 이치에 따라서 불교를 믿으십시오"라고 힘주어 당부하셨다.

스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염심히 하는 것도 수행이라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중생들은 자신에게 부처님의 성품과 같은 불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밖에서 찾지 않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불사통해 전인류가 성불인연

5대수행으로 지혜의 눈 떠야

수행입니다. 염불수행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올바른 마음의 첫걸음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나의 본심은 허상이 아니고 불생불멸의 실상임을 관해 들어가면 부처님 국토에 나는 것입니다. 참선수행은 부처님의 성품과 같은 불성이 나에게도 있다는 자신 속에 곧 견실심堅實心을 보는 수행입니다."

스님은 백 사람이 모이면 백 사람의 기호와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붓다들이 자기의 근기에 맞춰 한가지의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어떤 경우라도 부처님의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해야 하며, 그 마음을 청정히 받들어야 합니다. 악을 그치고 마음을 청정히 해서 선을 닦아 깨달음을 이루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내 마음 가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니 일과 이치에 따라서 불교를 믿으십시오"라고 힘주어 당부하셨다.

스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염심히 하는 것도 수행이라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중생들은 자신에게 부처님의 성품과 같은 불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밖에서 찾지 않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예의와 엄격한 계율수지를 강조하는 도문스님. 스님은 전법을 위해 불경과 어록을 100만권 배포하고 100만명에게 수계했다.

◇스님은 항상 상좌스님들에게 금강경의 요체를 설하신다.

스님은 <불설월상녀경>에 나오는 '월상(月上) 화두'에 대해 설하셨다.

"부처님이 비야라국의 대수림(大樹林)의 초모(草茅)정사에 머무를 때, 성안의 이차(難車) 가(家)에 비마라힐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태어날 때에 몸에서 묘한 광명이 솟아 온 집안을 비추었기 때문에 월상(月上)이라고 이름 하였습니다.

처녀가 예쁘고 단정하다는 소문을 들은 권세 있고 부유한 1천여 집안의 자제들은 월상을 탐하였습니다. 월상은 1천여 명의 총각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 얼굴이 쭈그러들고 볼품없이 될 것이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진정 내 본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보아라' 월상은 이렇게 말하고는 탐욕에 찬 대중들에게 자신이 전생에 욕심을 일으키지 않아서 미묘한 몸을 지니게 되었음을 알리고, 욕심을 여의고 해탈하고자 하는 자는 함께 여래에게 가자고 설하였습니다. 월상의 설법을 들은 대중들은 기뻐하면서 월상을 따라 부처님의 처소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사리불은 500명의 비구와 함께 탁발을 하기 위하여 성으로 오면 중에 월상의 무리와 만났습니다. 사리불은 월상이 부처님을 찾아가는 것을 알고 그녀를 시험하기 위하여 '어디를 가는가?' 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월상녀 대답하되 '나는 사리불님처럼 그렇게 갑니다.' 합니다.

사리불 존자가 다시 묻되 '나는 성으로 들어가고 그대는 성에서 나오는데 어찌해서 나처럼 간다고 하는고?' 하니, 월상녀가 도리어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되물어요. 사리불 존자가 대답하되 '부처님의 제자들은 큰 열반에 머무른다.' 하였습니다.

이에 월상녀가 '부처님의 제자들이 열반에 머물고 있으므로 나도 사리불님처럼 그렇게 갑니다.' 하고 답합니다."

스님이 월상과 사리불의 문답을 들려주신 뜻은 무엇까. 가야할 길은 오직 하나뿐인데 사람들은 어느 곳을 기점으로 정해가고 오는 현재의 위치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일 것이다. 모든 법은 분별할 수 없으며, 보리란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명(假名)에 불과할 뿐이고, 법의 모든 상(相)에 머무를 수도 없으므로 열반은 멸(滅)이 없음을 설하는 듯했다. 과연 진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스님은 나직히 "부처님과 부처님이 서로 보지 아니하고 조사님과 조사님이 서로 전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부처님과 조사님의 혜명법은 곧 정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태평양 가서 물마시고, 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내 마음 고요하면 법이며 깨끗하면 부처입니다. 8만4천 무진법문의 교리는 부처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한생각 어디서 일어나는고?' 일어나는 당처가 없는 도리를 깨달으면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것이 극에 달하면 마침내 밝아져 버립니다. 보고 듣는 그 모든 것은 허깨비 환상입니다. 꿈은 허상이지 실상이 아니라고 알아버림으로써 집착하지 않습니다. 삼라만상이 환상임을 깨닫게 되면 집착을 여의고 자성이 밝아집니다." 라고 들려주셨다.

중생심의 표현이겠지만 항상 스님을 뵈면 궁금한 점이, 왜 그렇게 바쁘시냐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스님께 '가야·고구려·백제·신라 초전법륜성지와 경주 남산·불교 5대성지·죽림정사 등 10가지 넘는 불사를 왜 동시에 하시고, 언제까지 불사를 진행하실지 묻었다. 대답은 오히려 간결했다.

"용성 대종사님이 1940년 열반에 드시면서 은사이신 동헌 완규 대선사에게 49일 후에 들어보라며 유훈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10가지 불사를 하라고 지시한 '십사목(十事目)'입니다. 1961년 부산 범어사에서 은사스님께 수법과 동시에 유훈 10사목을 받았지요. 20년간 10사목을 실현하기 위해 은사스님과 노력을 경주했어요. 은사스님이 입적한 83년 이후부터는 상좌, 신도들과 불사해왔는데 2004년이면 모든 불사가 완전히 실현됩니다. 그때까지는 오로지 이 일에 매진해야지요."라고 말씀하셨다.

"내마음 고요하면 법 깨끗하면 부처"

스님은 5대 성지불사는 부처님이 탄생하신 녹야원과 깨달음을 얻으신 부다가야 보리수원에만 한국사찰을 짓는 불사를 하시겠다고 말하셨다. 스님은 불사를 직접 하지 않는 대신 불사경비 일체를 인도 현지에서 힌두교도들에 대항해 성지 반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스님들에게 보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모두가 가짜이니 진짜로 돌려라.

몸이여!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生老病死)로구나….

마음이여! 한생각 나오고 잠시 이어지고 달라지고 없어지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이구나….

우주여 이루어지고 존속되고 무너지고 공이되는 성주괴공(成住壞空) 이구나…, 이것이 인연의 가합상 가짜로구나….

불성! 주인공아…!

이 뭣고?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a.com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홍법스님

(전호에 이어) 스님께서는 지금 중앙승가대 총장인 종범스님에게 전강하여 강사를 시키고 주지 소임을 맡으셨다. 그 때 나는 해인사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 부르셨다.

"통도사에 와서 중강(仲講)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 강사할 준비를 해요. 통도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공부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얼마 동안 중강을 맡아보면서 공부하게 되었다.

"내가 스님에게 이 방을 줄 터이니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오세요. 이 방은 한용운스님과 운허스님께서 쓰셨던 곳입니다. 여기서 스님도 그분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서원하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화장찰해(華藏刹海)'라는 편액이 붙어있는 마루가 달려있던 방이었다. 스님은 그 방에서 옛날 그 방을 썼던 훌륭한 분들과 같은 스님이 다시 출현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방이 헐려 없어지고 나 또한 스님의 당부대로 되지 못했으니 제행이 무상한 것은 어쩔 수 없는가.



내가 통도사를 떠나 대구 부근 고찰에서 주지 소임을 맡고 있을 때 스님은 깊은 병이 드셨다. 간경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은 대중에서는 서로 피해가 된다며 내가 머물던 조용한 곳으로 오셨다. 내가 쓰던 방을 비워드렸지만 한사코 비워둔 방에 자신의 거처를 만들고 머무셨다. 시내에 나가 간경회에 좋다는 바지락을 사다 국을 끓여 드렸지만 스님은 드시지 않았다.

"왜 내가 시키지 않는 일을 합니까? 한 평생을 먹지 않던 것을 이제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더이상 습프게 하지 말아요."

스님의 고집은 완강했다. 그러한 고집이 한평생 수행자로서의 생활을 유지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 스님이 너무 계율에 집착한다고 생각했다. "스님! 스님만 생각지 마십시오. 중생을 위해서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스님자신을 위해서보단 중생을 위해 더 사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약입니다."

"그렇다면 알았어요. 내가 혼자 먹을 터이니 스님은 그만 나가 스님일을 보도록 해요."

내가 방을 나온 뒤 스님은 그것을 냄비 채로 들고 나가 텃밭에 붓어버리고 말았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말없이 떠나버리시고 말았다. 지금 생각하면 끝까지 계율을 지키시고자 했던 스님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혀 드렸다는 자책이 든다.

그로부터 얼마 뒤 스님은 입적하셨다. 이제 내가 병을 알고 있다. 이 약 저 약을 먹어보려 생각해보지만 내키지 않는다. 수행자가 병이 들면 대체로 두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참담하다는 생각과 진실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생각하는 것이다. 홍법스님은 그렇게 가셨지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본다. 수행자로서의 삶에 더욱 투철해야겠다는 결론이다.

인욕을 실현하며 사는 수행인에게 어째서 병이 생기는 것일까. 인욕하는 생활이 곧 수행이라면 수행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아마도 억지로 참는 행위가 마음에 병이 될 것이다. 인욕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다. 화나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자신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주장하는 순간 아무리 참는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무치게 인식할 때, 화는 사라지는 것이며 매사를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진정 만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겐 언제나 희열이 있을 뿐 성남은 사라지는 것이

약으로 바지락국 드리자

몰래 버리고 말없이 떠나

아닐까. 죄에는 자성이 없다.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자신을 주장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디에 죄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이 없으면 매사에 경솔한 생각이 들게 되니 병으로 스승을 삼아라' 고 하지 않았는가. 스님은 병중에도 훌륭한 수행인으로 살다가 가셨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렇게 서둘러 돌아가신 스님이 우리에겐 아쉽지만 당신 자신은 행복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며칠 전 삼화령 가는 입구를 지나왔다. 여러 해를 해외에서 사느라 한국의 봄을 제대로 느낄 기회가 없었는데 모처럼 한가하게 한국의 봄길을 달려보니 한국의 신록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화령을 지나며 충담스님을 생각했다.

"임금은 지아비요, 신하는 지어미니 백성은 아해라.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우면 백성은 태평하리니."

요즈음 온 나라가 '답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가의 수반이 수반답지 못하고 그의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다. 정치인이 그 답지 못하고 국민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서로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홍법스님이 그리운 것은 비록 짧은 생을 수행자로 살다 가셨지만 '스님다운 스님'이셨기 때문이다. 홍법스님 같은 스님을 다시 뵙고 싶다.

■ 구미 영명사 주지

